

대구주보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10. 1. 31. (다해) | 제1660호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요한 3,17)

오늘의미사

입당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2독서 1코린 12,31-13,1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4,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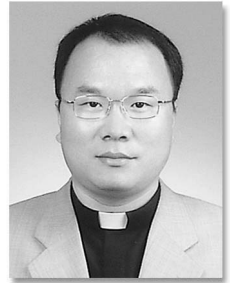
영성체송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일의 말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김기진 대건안드레아 신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얼마 전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인 아이티에서는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규모 7이 넘는 지진의 위력 앞에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자연의 재앙을 접하면서 우리들을 비롯한 전세계 사람들은 아이티 국민들의 절망을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자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의 각 나라들은 아이티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으로 여기며 갖가지 도움을 전하는 인류애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재앙이 가져다 준 절망 가운데 작은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아이티 국민들은 엄청난 재앙이 가져다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해외원조주일을 지내면서 이 놀라운 나눔과 도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아이티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눔과 도움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넘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해주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고 신앙이며(마태 25장 참조), 따라서 우리들의 작은 나눔과 도움은 바로 우리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교회는 주변 나라들의 나눔과 도움에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을 발판으로 이제는 도움 받는 나라와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와 교회의 모습으로 그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교구 사회복지회에서도 교구설정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해외원조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한 일대일 결연사업과 의료지원사업 등을 통해 과거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해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역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며 신앙의 표현이기에 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건 안드레아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루카 4, 25-27참조

교구 사제 인사 발령

* 부임일 : 2010. 2. 5(금)

No.	성명(세례명)	임	면	비고
1	박형진(아우구스티노) 신부	원로사제	봉덕본당 주임	
2	이강언(바오로) 신부	성주본당 주임	죽전본당 주임	
3	강택규(예로니모) 신부	남산본당 주임	성바울로본당 주임	
4	천광성(바오로) 신부	안식년	남산본당 주임	
5	황용식(타데오) 신부	대구평화방송 사장	큰고개본당 주임	
6	정홍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오산자연학교 교장	경산본당 주임	
7	서경돈(알베르토) 신부	봉덕본당 주임	안식년	
8	최재영(시몬) 신부	죽전본당 주임	대구평화방송 사장	
9	김도율(요셉) 신부	큰고개본당 주임	성주본당 주임	
10	박수태(비오) 신부	성령쇄신봉사회 전담	소화본당 주임	
11	한영수(F.하비에르) 신부	소화본당 주임	대신학원	
12	최종현(베드로) 신부	경산본당 주임	서재본당 주임	
13	서준홍(마티아) 신부	성모당 담당	관덕정순교기념관장	
14	최광경(비오) 신부	성바울로본당 주임	가톨릭신문 미주지사	
15	서정만(이시도로) 신부	서재본당 주임	교포사목(스페인 라스팔마스)	
16	이상재(가스통) 신부	가톨릭신문 미주지사	가톨릭신문사 주간	
17	주홍중(대건안드레아) 신부	해외 연수	교포사목(미국 브루클린)	
18	김호균(마르코) 신부		교구 사목국차장(교구 청소년담당)	기계본당 주임
19	여영환(오토) 신부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성미카엘본당 주임	
20	서준영(요한) 신부	침산본당 주임	볼리비아 선교	
21	한인갑(베네딕토) 신부	성미카엘본당 주임	유학(오지리), 겸) 교포사목(독일)	
22	문종배(베네딕토) 신부	교포사목(스페인 라스팔마스)	모화본당 주임	
23	전재현(베네딕토) 신부	교구 사목국차장(교구 청소년담당)	침산본당 주임	
24	정재성(요한) 신부	1대리구 가정담당	문덕본당 주임	
25	곽민제(미카엘) 신부	대신학원	유학(이태리 로마)	
26	서보효(라이문도) 신부	교포사목(미국 브루클린)	대신학원	
27	권오관(독인베드로) 신부	문덕본당 주임	3대리구 가정담당	
28	윤지중(미카엘) 신부	모화본당 주임	1대리구 가정담당	
29	김성은(요한) 신부	겸)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교목		무학중·고등학교 교목실장
30	배성수(라우렌시오) 신부	겸) 종교교사 자격연수		성의중·고등학교 교목실장
31	김종률(스테파노) 신부	3대리구 가정담당	볼리비아 선교	
32	최 호(요한보스코) 신부	4대리구 청년담당	대건고등학교 종교교사	
33	이광호(라우렌시오) 신부	대신학원	유학(이태리 로마)	
34	최석환(요셉) 신부	대신학원	범물본당 보좌	
35	강진기(안드레아) 신부	겸) 종교교사 자격연수		1대리구 청년담당
36	구자균(다미아노) 신부	옥수본당 보좌	대신학원	
37	이정욱(안드레아) 신부	대건고등학교 교목실장 겸) 종교교사 자격연수	4대리구 청년담당	
38	권대진(다마소) 신부	범물본당 보좌	신암본당 보좌	
39	류주화(시몬) 신부	들꽃마을(포항) : 중증장애인시설, 노인요양보호시설	월명성모의집 원목담당	
40	황대환(바오로) 신부	신암본당 보좌	옥수본당 보좌	



2010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문(요약)

해외 원조, 세계의 가난한 이들과 벗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0년도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에게 **참된 벗**이 되어 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은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마태 25,35.37.42 참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사도 4,34)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루카 14,13-14 참조)과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포함하여,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마태 14,16 참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루카 10,29-37 참조)에게 조건 없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지난해 9월에 지구촌의 기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고, 세계 인구의 1/3에 이르는 27억 명이 2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층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자연재해가 빈번해, 지난해에도 가뭄과 태풍 모라꼿과 켓사나,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요구되는 지구촌의 연대 의식은 이러한 빈곤에 대한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벗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비

록 자신과 적대 관계의 사람이 강도를 당한 것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루카 10,29-37 참조)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진정으로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줄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벗**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사회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통해 세계화된 사회의 폐해를 지적하시고, ‘공동선에 봉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이끌며, 부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기에 세계 모든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십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주님께서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 ‘벗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참조)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늘 열려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참된 벗**으로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로마 5,11).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느님의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0년 1월 31일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며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 명 옥 주교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박성규 엘리자오





영성의 향기

::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표현된 구절로 그 삶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도구로 쓰이는 일,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허황된 이론에 속아 넘어 가지 않으며 궤변이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은총을 잘 관리하면서 봉사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꽃 도매상에 들렀을 때 그 형형색색의 꽃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그 꽃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는 표현 할 길 없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 따라 나섰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싹텄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제자들의 삶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어 하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새로움에 도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 가는 과정, 즉 여정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인가 영적 유익함을 얻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례 받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떠나야 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유명한 화가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의기소침한 얼굴을 하고 걸어갔습니다. 화가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관찰한 다음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상화가 완성되자 화가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 그림은 나의 걸작일세. 앞으로 이 그림 보다 더 잘 그리지는 못할 걸세.”

이윽고 뒤편을 치우자 친구의 자화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와 얼굴은 자신과 다를 바 없었지만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어깨는 짝 편 채 눈은 희망으로 빛났으며, 입 언저리가 치켜 올라간 모습이 결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나란 말인가? 이것이 내 내면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그러자 풀이 죽어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네만, 이제부터 자네가 발견한 내 내면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네” 

- 율려온 글입니다. -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대구대교구 산하기관 2 : 교육기관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사목기획 실장

대구대교구는 산하에 학교법인 선묵학원을 두고 교구의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가톨릭정신에 따른 교육을 통해 세상복음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법인 선묵학원 사무국장은 이상국신부님이고 기획실장은 박정근신부님입니다.

1. 대학교

교구가 운영하는 대학교는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914년 사제양성을 위해 개교했다가 1944년에 일제에 의해 폐교된 성유스티노 신학교를 전신으로 하고 있고, 1982년에 재개교한 선묵신학대학교와 1952년에 개교한 효성여자대학교가 1995년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경북 하양에 대학 본부가 있는 효성교정, 대구 남산동에 신학대학이 있는 유스티노교정, 대구 대명동에 의과대학이 있는 루카교정 등 세 교정에 14개 단과대학이 있고 700여명의 교수, 360여명의 직원, 13,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 고등학교

교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6개로 대구에 2개, 하양에 1개, 경주에 1개, 김천에 2개가 있습니다. **대건고등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무학고등학교**, **근화여자고등학교**, **성의고등학교**, **성의여자고등학교**, 이 외에도 왜관 성베네딕도 수도회가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순심고등학교**, **순심여자고등학교**.

3. 중학교

교구가 운영하는 중학교는 6개로 대구에 2개, 하양에 1개, 경주에 1개, 김천에 2개가 있습니다. **대건중학교**, **효성중학교**, **무학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성의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이 외에도 왜관 성베네딕도 수도회가

운영하는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순심중학교**, **순심여자중학교**.

4. 초등학교

교구가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효성초등학교**입니다. 효성초등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많은 인재를 키워낸 지역사회의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자가 많아서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5. 유치원

교구와 수도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전부 28개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정신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은 선교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화유치원(경주)**,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신서)**, **도**

동유치원(울릉도), **동촌유치원(동촌)**, **마리아유치원(김천황금)**, **마리아유치원(범어)**, **분도유치원(원평)**, **비안네유치원(옥수)**, **삼덕유치원(범물)**, **상지유치원(내당)**, **샬렐유치원(신동)**, **샬렐유치원(안강)**, **샬렐유치원(영천)**, **서재성모유치원(서재)**, **성모유치원(남산)**, **성모유치원(인동)**, **성바오로유치원(오천)**, **성심유치원(비산)**, **성심유치원(신평)**, **성심유치원(죽도)**, **성체유치원(형곡)**, **소화유치원(고령)**, **순심유치원(왜관)**, **신성유치원(성주)**, **청도성모유치원(청도)**, **평리유치원(평리)**, **해성유치원(사수동)**, **효성유치원(국우)**.

교구설정 100주년을 맞아 교구가 수행하는 모든 교육사업이 복음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 시노드 마당

“젊은이 복음화” -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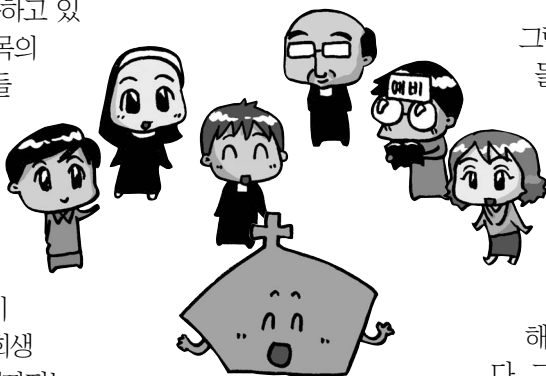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시노드 사무국장

“청년은 교회의 현재요 미래”라는 말을 합니다. 일찍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젊은이들은 젊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보화를 가진 것이며, 그 보화는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젊은이들은 존재 자체로도 교회가 열정적으로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목대상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졌을 뿐, 중심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 사목의 주도권은 기성세대인 어른들에게만 주어져 있으며, 청년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성인 사목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은 젊은이들이 일찌감치 학업을 끝내고 사회생활에 발을 들였던 70-80년대까지는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잘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직장이라는 안정된 구조 안에서 자리 잡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 젊은이들은 30대 중반이 넘도록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결혼을 미루는 등 10년 이상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성인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최소한 기성세대와는 다른 대단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도 이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결혼”입니다. 학생 시기는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학업을 끝내고 사회에 진출한 젊

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이 당장의 삶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수험생 못지않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그들이 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성세대와 구분하지 않는 사목을 펼친다면 젊은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만 몰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젊은이 사목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삶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희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들은 기성세대와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젊은이의 특권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본당 주일학교에 준할 만큼의 물질적인 후원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그동안 젊은이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소위 ‘소통의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1주기 기일 미사

- 일시: 2.16(화) 11: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 집전: 조환길 주교

★ 모임 · 행사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음악회

- 캄페라 테너 임형주 & Memory
- 일시: 2. 20(토) 19:00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
- 문의: 422-4224(티켓가격: 4만4천원~9만9천원)

★ 성소모임 · 피정 ★

대구 툿팅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디락방 성소모임

- 일시: 2. 7(일) 11:00 미사~
- 장소: 대구 툿팅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본원
- 문의: 010-8519-3431 / 313-3431

빛사랑 축복 피정

- 일시: 2.20(토)19:30~22:00, 장소: 예수성심교육관
- 주제: 너를 축복하노라
- 대상: 누구나, 준비: 5천5백원, 열린마음
- 신청: 다음카페 luxamor486 / 선착순 150명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있는 남성
- 문의: 010-8510-5423

실례시오성소피정 "저희와함께묵으십시오." (루카 24, 29)

- 일시: 1차 2.4(목)~5(금) / 2차 2.5(금)~7(일)
- 장소: 대전 정림동 공동체,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형제님들
- 대상: 1차 중~예비교2 / 2차 예비교3, 대학생, 일반(30세미만)
- 문의: 02-831-3068 / 성하운수사 011-894-1332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젊은 남성
- 일시: 매월 첫째 일요일 11:00~16:00
- 장소: 서울 돈암동 성골롬반 선교센터 2층
- 문의: 양창우 신부 010-6818-3737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거룩한 독서 피정

- 일시: 2.17(수)~21(일) / 3.9(화)~12(토)
- 장소: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고성)
- 문의: 016-816-1986 / 010-8873-1348

『모세』오경의 맥을 따라 젊은이 성경 피정

- 일시: 2.27(토)14:00~3.1(월)15:00(마감2.21(일))
-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본원
- 대상: 20~40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9330-3104, 회비: 3만5천원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어린이집 2010년도 원아모집

- 나이: 만 1세 ~ 4세
- 위치: 진량성당 옆(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97-1)
- 전화: 856-2033, 3033

관덕정 2월 영여성경 공부반 모집

- 개강: 2.2(화)10:00~12:00 화, 목 강의
- 과정: 사도행전(Acts) 및 레위기(Leviticus) · 민수기(Numbers)
- 문의: 2540151 / 010-2578-5535, 월회비: 2만원(교재비별도)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1급(국가자격증취득반) 1기 개강**
- 교육기간: 2.22(월)~4.2(금) / 주5회(주24시간)과정
- 접수기간: 2.8(월)~12(금)5일간(내방접수)
-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3층/ 255-7221~2
- 대상: 요양보호사활동에 관심있는분 선착순 30명

제7기 환경위원회 청찬프로그램 안내

- 일시: 화 10:00~12:00 / 14:00~16:00, 6주(주1회), 12시간
- 장소: 교구청교육원가동 2층 206호 환경위원회
- 신청 및 문의: 환경위원회 253-3655

가톨릭근로복지회관 강좌안내(253-1313)

- 스페인어초급개강모집: 3.4(목)11:00/19:00
- 일본어초급개강: 3.2(화)10:00저19:00
- 영어초급개강: 3.5(금)10:00/6(토)10:00
- 스페인어Junior반 모집: 3월개강(선착순15명)

새빛학교 한글 · 국어반 신입생 모집

- 접수: 2.10(수)까지
- 대상: 한글에 자신없는 성인남녀
-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어버이성경학교 신입생모집(신 구약4년과정)

- 모집기간: 12.1(화)~2.15(월)
- 대상: 가톨릭 신자 누구나
- 원서접수: 직접 방문 또는 메일이나 카페
- 메일: osbible@hanmail.net / daum카페:어버이성경학교
- 문의: 815-7888(fax검용) / 815-0337,1114

제25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개설

- 일시: 2.22(월)~26(금)13:30~17:00
-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강의동 2층 제9강의실
- 문의및신청: 평신도신학교육원660-5105~6

수화교실개강(초급 · 중급) 회비(만원, 교재비별도)

- 일시: 매주(일) 14:00 / 16:00(3개월)
- 개강: 2.28(일) 14:00, 장소: 계산성당
- 문의: 농이선교사무실 254-3423 / 011-809-0447

제1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안내

- 일시: 2.20(토) 15:00~22:00 매주 토(6주간)
- 장소: 범어성당내 제2대리구청(641-5678)

성바로로 안나의 집 가족 모임

- 입소대상: 만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신변자립이 가능한 모든 노인
- 입소비용: 생활비 월3집7만4천원(보증금500만원)
- 구비서류: 건강진단서(보건소),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054-382-1634 / 054-383-5570

제5기 '세상속의 영성수련, 교육 안내

- 일시: 2.10~4.14 매주(수) 20:00~21:30
- 장소: 범어성당(수강료: 7만원)
- 예수는 누구인가/믿는다는것/기도란 무엇인가?
- 목상1,2/관상/원리와기초/성찰/영의식별1,2
- 문의 및 접수: 대구CLC 793-3555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 후원회 및 시각 장애인 선교회 월미사	2월 1일(월) 오전11시	계산성당	한국 SOS어린이마을 2월 후원회 월례미사	2월 3일(수) 오전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군중후원회 미사	2월 1일(월) 오전11시	성모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미사	2월 4일(목) 오후3시	성모당
5대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일(월) 오전11시	신명성당	미바와 미사	2월 5일(금) 오전11시	성모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2월 1일(월) 낮12시	성모당	성모의 기사화 미사	2월 6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내 수도원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2월 1일(월) 오후7시30분	꾸르실리교육관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2월 6일(토) 오후 2시	남산성당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안마기, 뜸, 부항
변 상 범(도마노) 김 인 숙(아너)

경대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 세 안 과

iFS아이리식, 백내장, 노인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학교수 원장 박 종 원 (소시모)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상담전화 626-8881~5



이시우 신경 외과

http://척주외과

척추 내시경, 한미경레이저 디스크 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내당역 3번출구 앞 뽕고개에 위치.

T.652-0119 / 이시우(요한)



오월의 정원

하루의 정원을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라마

결혼 · 돌 · 회갑 · 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시티센터(구. 밀리오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전국택배가능” 천제명 홍삼

설맞이 행사 30%~10%

도석록(스테파노) 이옥이(살마)

053-793-5325 / 010-7744-5768



대레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이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할,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 일(그리산도)신부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지부 치료비 지급 (바우처 제도)

매월인당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 놀이, 미술, 음악, 언어, 학습치료ADHD등

소장 조옥형(아네스) / 652-9000